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축하한다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하고 이낙연 후보에게 위로를 드린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는 충격과 미스터리였다. 경선 마지막날인 10일 발표된 서울지역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참여하는 순회경선에서는 이재명 51.4%, 이낙연 36.5%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한 반면, 일반 당원과 선거인단에 지원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재명 28.3%, 이낙연 62.3%로 이재명 후보가 예상과 달리 이낙연 후보의 절반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10월 3일 발표된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선 이재명 58.17%, 이낙연 33.48%를 득표했고, 9월 12일 발표된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이재명 51.09%, 이낙연 31.45%를 득표했다. 불과 열흘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그 결과 이재명 후보는 최종 50.29%로 간신히 과반에 턱걸이해서 결선 투표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이낙연 후보는 최종 39.14%로 2위, 추미애 후보가 9.01%, 박용진 후보가 1.55%로 뒤를 이었다.

이낙연 후보 캠프가 경선 포기 전에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얻은 표는 유효표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49.32% 득표가 되어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논리로 승복하지 않았다. 10월 13일 당무위원회

가 지난 선거에서 관례도 있고 당헌 당규에 부합한다면 불복 신청을 기각하고 이재명 후보 선출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강성 당원들은 법원에 경선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다. 헌법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정당 내부의 문제는 존중해 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이재명 후보가 34% 큰 차이로 진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하여 일부에선 가장 늦게 모집한 3차 국민선거인단에 이낙연 지지층이 대거 유입됐거나, 결선투표까지 가서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보수 성향 커뮤니티나 이재명 후보에게 반감을 가진 특정 종교집단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전수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3차 선거인단 모집 시기에 수많은 극우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역선택을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내용의 보수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글을 캡처한 자료를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 측은 대장동 리스크 영향과 극우 세력의 역선택, 특정 종교의 개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자만하지 말라'는 국민의 채찍으로 받아들여기로 했다. 송영길 당대표가 권유했으나 경기도지사를 사퇴하지 않고 10월 18일과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현장 투사로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정치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부동산 투기도 잘하는 뻔

뻔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국민들에게 보이기 쉽다. 그래서 기성 정치인 보다는 중앙 정치권에 몸 담지 않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나 변방 아웃사이더라고 자처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호하고 선택했다. 옛날 같으면 국회의원, 국무총리, 감사원장, 당대표, 장관, 국회의원 등을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이라고 높이 존경하며 따랐다. 대통령도 끌어내려서(탄핵) 감옥에 보내는 국민이 깨어있는 시대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후보와 같은 고향, 전남 영광 출신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세월도 30년이 넘는다. 내가 1987년 평화민주당(김대중 총재) 창당 때 부터 중앙당 인권위원회 민원부 국회사립기사를 하던 이낙연 후보를 만났다.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재경영광군향우회 등에서도 만났다. 이낙연 후보의 인품은 훌륭하다. 이 후보의 팬클럽 '평화포럼'이 이낙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사모)을 창립한 대표로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모든 것이 험기중간에 급변하는 변혁의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희망을 걸 수 있는 새 인물을 좋아한다. 권력을 쫓는 정치는 원래 비정한 세계다. 정치인들도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국민에게 정직하게 봉사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비정한 심판대에 세울지 모른다.

칼럼

기고

소방출동로 확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킵니다

주영철 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령

매년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간혹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는 소방차나 119구급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 갈 때에는 화재, 인명구조 등 신속한 출동대처가 필요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병원이송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경우이다.

그러나 일부 차량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긴급차량 양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소방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 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득시에도 안전교육을 통하여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 준수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내 일처럼 여기며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혼잡하게 주차된 자동차들로 인해 육중한 몸체의 소방차가 지나가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다. 소방도로의 개설목적과 달리 기능을 상실하는



바람에 소방차량 의진·출입이 어려워지면 출동시간

이 지연되고 인명구조장비 사용에 큰 장애가 되어 커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담양군민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며 나 자신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재용 감식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또는 저수조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역시 많지 않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골목길에서는 한쪽에만 주차하고 모퉁이에는 절대 주차를 하지 않는 등의 최소한의 소방차가 통행 할 수 있는 길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성숙한 군민의식을 가지고 소방차가 긴급 출동시 진행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올바른 운전습관과 주차의식을 가져야겠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명알고요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기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기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위드 코로나' 비대면 디지털 소통 시대

정혜영 장흥군청총무과



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과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의 제정을 변경하여 2021. 6. 10. 시행하였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와 교육의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있듯 정보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정보 활용 계획이 시급한 현실이다.

기존 고령층을 비롯한 농어민·장애인·저소득층의 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군 정보화교육장에서 주 5일 20명씩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대면 교육이 제한되고 있어 새로운 비대면 교육이 절실하다.

디지털로 모든 게 이뤄지는 현대 시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서 텔레스터디(Tele Study), 직장일을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텔레워크(Tele Work)가 일반화 되어 가며 디지털의 기술은 더욱 각광 받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고령층 등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

한 대안 마련 및 실현이 시급해졌다.

이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알맞은 '비대면 스마트 통합미디어 플랫폼'을

도입하여 비대면 맞춤 교육으로 정보 격차를 완화하고 온라인 민원인 상담회를 통해 군민과 소통하며 스마트 기기(모바일, 태블릿 등)를 활용한 이동형 화상 회의와 비대면 온라인 행사 및 방송 지원 등 행정에 많은 활용이 예상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지역사회 화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기고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